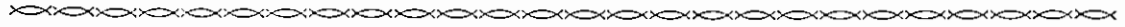


## ‘좋은 교수’論

朴 秀 永

(韓國外大 韓語科)

한 학기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하지만, 교수에게는 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이른바 학점을 매기는 다소 곤혹스런 과제가 남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학점 자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학점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의 지적 학습능력과 성과를 확인하며, 교수는 자신의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얻는 기회를 삼는 것”이라는 평상시의 주장은 잠시 접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론 느끼는 바이지만, 오늘의 대학 현실에서 학점은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보다는 대학 안에서나 사회에서 또다른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학이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었던 시절에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으므로 학점의 의미는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대학이 대중교육체제로서 양적으로 팽창한 상황에서는 대학 졸업장보다 성적표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는 당연한 이치로 학점이 대학에서의 학습 정도와 당사자의 지적 능력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은 매학기 일정량의 과목을 수강하고 기준(D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점제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 졸업과 관련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종 장학금 수혜와 학군단 선발 등의 기준이 됨은 물론, 졸업 후 취직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성취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학점 자체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며, 때로는 적은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평가를 통해 과목의 내용과 교수 방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학기가 끝나면 늘 되풀이되는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학점 매김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학생과 교수 모두 학점의 의미를 학계상의 평가형식으로서만 파악하고, 본질적 의미라 할 수 있는 강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성과는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간과하는 데서 오늘날 대학교육의 모순과 과행성이 좀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짧은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대학 사회의 주요 구성성분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대학의 여건을 주로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학입시제도와 고교교육의 파행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날이 고학력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긴 하였으나, 학생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나 공부에 대한 덧정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소위 중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에서, 개인의 적성이나 소신과는 관계없이 선택한 전공학과에다, 더구나 졸업 후 사회진출 전망도 밝지 않은 비인기학과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대학 입시만을 목표로 한 고교교육의 후유증으로 그 첫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대학 교육환경의 여러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먼저 교육의 대상인 학생집단이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서로 다르고, 그 지적 능력에 있어서도 매우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착실과' 학생들은 어떤 교육환경에서도 스스로 적응하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대다수의 학생에게 학점은 최하의 점수라도 받아서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점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전공학과의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체로 부담없는 강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요 과목이 폐강되거나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강의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내적 문제와 함께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을 둘러싼 학내 갈등과 국내의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 등으로 전공 분야에서의 학습동기 유발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은 전문지식을 매개로 한 인간교육의 완성이라는 대학의 고전적 의의를 강조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마냥 고지식하게 할 수만은 없으며, 적당한 선에서 가능한 한 낙오하지 않게 배려해서 졸업을 시키는 것까지 그 임무로 여겨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대학교육의 여러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교수 자신의 자책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교수직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현대의 대중교육 담당자로서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중등 교사들은 학생들과 일차적·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을 행하는 데 반해, 교수는 전문지식을 매개로 한 간접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 외에 연구를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과 학위를 갖추고 있으면 교육학이나 교수법상의 어떤 훈련을 받은 바가 없어도 교수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강의보다 연구에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로 인해 대학 강단에서의 교수법이란 교수 자신이 받은 교육방법을 답습하게 되고, 십년 전이나 이십년 전이나 별반 차이없는 강의 형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성격이 진리탐구의 상아탑으로부터 대중교육의 장으로 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또한 교수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절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수는 '가르치는 일'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집단의 성격과 수준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방식을 개별적으로 또는 같은 분야의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물론 대학의 여러 여건의 개선과 함께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은 당연한 얘기다.

이제는 가장 절실하면서도 쉽사리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의 연구 여건과 교수 여건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몇몇 국·공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립대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직·간접으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양적으로는 급속도로 팽창한 학생수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과 학교 시설의 불충분 상태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에 따라 약간씩 사정은 다르겠지만 교수당 학생수가 50~60명을 넘어서고,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을 넘나드는 상황은 한 두 대학의 예외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런 여건에서 강의방식과 내용의 질적 변화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평가 또한 개별적이

고도 진지한 작업이기보다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 학기에 한 두 번에 걸친 필답시험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구조교 제도가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기중에 과제물을 부과하는 것도 제대로 평정해서 되돌려 주지 못하는 공허한 게스처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교수 여건은 다시금 연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수충원 문제와 관련되어, 개별 학문의 세부 분야에 전문가들이 교루 충원되지 못한 실정에서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과목도 담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 강의와 연구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수직의 성격상 강의보다는 연구활동의 비중이 높고 실제 관심도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연구업적이 부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인문계 교수의 경우 1년에 논문이 평균 0.9편이라는 자료가 있음, 『교수신문』 제 2호, 1992). 현실적으로 강의도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은 교수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최근 언론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 ‘교수 강의평가제’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지만,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강의평가의 원칙과 방식을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용한다해도 제도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은 가장 중요한 교수와 연구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학교육의 문제는 학생집단의 양적·질적 변화에 비해 대학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교수들은 안이한 자세로 전통적 교수방법을 고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교수들의 혁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즉,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연구에 관심을 갖는 한편, 학생의 학습평가 작업이 곧 교수 자신에 의한 강의평가로 이어지는 자기 반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교수 강의평가는 제도적 장치로서가 아니라 교수 개인 또는 개별 학과 나아가 개별 대학 차원의 ‘건통’으로 자리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평가의 결과인 학점의 본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어느 대학 입학식에서 들은 총장 인사말에서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과 좋은 교수진 그리고 좋은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학생들이 모여야 좋은 대학이 된다”는 것이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교수진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의해 대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파, 거꾸로 비록 시설과 교수진은 보잘것 없더라도 좋은 학생들만 있으면 학교는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좋은 대학론’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과 좋은 학생 그리고 좋은 교수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수들이 많아야 좋은 대학이 된다.”——여기서 좋은 교수란 학생의 학습평가를 자신의 강의평가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교수를 뜻한다. ▣